

# 마음 자체가 탈피를 하려면 진정코 믿어야!

29면에서 계속

생 공용 공체 공심 공식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라 이런 겁니다. 다섯 가지의 문제를 총동원해서 한마음에 더불어 살고 있는 이 자체가 바로 여러 이며 부처이며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손이 그 도리를 알게 되면 그 때로 한 종자에 한 종류니가 살아서 모습만이 하나가 아니라 죽은 사람들도 죽지 않았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돌이 아니게 돌아간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백종날 이렇게 봉투에다 지극히 내 마음을, 자식의 도리로써의 마음을 어머니 할아버지든가 할아버지 할머니 다 이렇게 생각을 통틀어 하면서, 아버지 어머니 그 은혜를 생각하고 '모든 것이 다 제 마음과 같이 돌이 아니게 한자리를 하소서' 하는 마음, 그게 그 치열한 부모의 사랑, 아리따운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허

이 치열한 자비가 아니라면 어찌 살 수 있겠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면서 한자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지극하지 않다면 마음과 마음이 통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마음이야말로 참 눈물겨운 마음입니다. 저도 때로는 눈물을 흘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 직접적인 몸으로도 내가 잘못해 가지고 부모의 속을 찌는 거는 아니지만 얼마나 그 속을 찌었는지 모릅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추우면 얼어 죽지나 않았는지, 여름이면 데워서 죽지나 않았는지, 하하하, 그냥 웃게 하느라고 그렇습니다. 이것을 굶어 죽지나 않았는지, 또 뭐 조화하려 가면 이제 죽어서 어디서 송장이 나와서 조화하려 왔나 이리해서 허우뒹심을 해서 뛰어왔고 뛰어오다가 잊드리면 각혈을 그냥 막 하시고 이렇게 해서 돌아가시게 한 장본인입니다.

그러니 이 장본인들도 여러분 못지않게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습디다. 더 속을 찌었으면 찌

세상이 있었구나.' 하고 그냥 한마음으로 돌아와서 그렇게 진화해서 다시 천도가 될 때 정말 이 세상의 왕으로도 태어날 수 있고, 장관으로도 태어날 수 있고, 그냥 남자가 또 한 여자로도 태어날 수 있는데 여자도 보통 여자도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그렇게 내가 그만쯤 해 놔야 아래 위가, 자식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래 위를 다 제도하면서 내가 깨끗하게 나갈 수 있고 온 천하에 내가 아니 있는 데가 없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란 그렇게 광대무변하고 그렇게 묘한 것이 마음입니다. 마음은 하나뿐이 아니라 만 개가 있다 하더라도, 만 개가 간다 하더라도, 만 개가 온다 하더라도 절대 그것은 가고 올이 없고 올 수 있고, 보는 게 없이 볼 수 있고, 듣는 게 없이 들을 수 있고, 모두 그렇기 때문에 자기도 이 세상에서 지금 어디에 발판을 두고 있나, 자기의 차원이 어딘가, 또 부모의 차원이 어떻게 됐는가 그것까지도 다 알 수 있게끔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보면 부모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자기 길을 보면 앞으로 자식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백종날 여러분이 마음을 온갖 뿌리에도가, 한 고장에 두시고 아주 진실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한마디 말하겠습디다. 할 말은 많으나 어떻게 말을 다 하리까. 여러분이 그릇이 커지는 대로 나도 커질 거고 여러분이 그릇이 작으면 나도 작을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우리 지금 신문이 나가게 됐습디다. 그것은 왜 내가 이렇게 거른했나 하면 몇 해 전서부터, 십년 전서부터 한 것입니다. 십년 전서부터 어떠한 생각으로 했느냐 하면 여기서 앉아서 설법을 한다 하면 세계로 보일 수 있고 세계로 들릴 수 있고, 또는 여기서 자료로 해 놓으면 세계에서 어느 방방곡곡에서도 다 그 재료를 빼다가 공부할 수 있고 말도 서로 통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바탕을 세워야 할 텐데, 바탕을 어떻게 세워야 하나 하는 생각에서 그 바탕을 세운 겁니다. 우리가 이 지금 방송시설이라든가 그 바탕을 세워서 전체, 편 것들만 사람 것도 전부 어떠한 데서 요구해도 다 해 줄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또는 그 통신시설도 그렇게 해서 세계로 이렇게 오고갈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모두가 우리가 똑딱치고 엄밀하고 여러 분한테 기복으로 전달하고 기도하라고 그리고, 이렇게만 하면서 우리가 있는 것이 어디 중입니까? 왜냐하면 과거 미래 없는 우리 현재에 공해서 그 공한 가운데서 나오는 불빛과 같은 것을 앞장서서 들고 나가야 하는 것이 중입디다. 중, 가운데 중 입디다.

그러니 여러분도 똥똥 똥똥쳐서 한마음으로서 앞으로 내가 살아 있든 내가 지금 나, 대리인 자식이



그림 · 최주현

## 여러분의 마음이 지극하지 않다면

## 마음과 마음이 통할 수가 없습니다

허허.

고 마음을 가지고 나는 그럴 것 같아요. 봉투에 단 몇 만 원을 넣는다 하더라도 '아버지, 어머니! 살아 계셔서 내가 이렇게 용돈 한번 제대로 못 드렸고, 맛있는 것 한번 제대로 못 사 드렸고, 공양 한번 따뜻하게 해 드리지 못하고, 살기 위해서 바쁘게 돌아다니다 보니깐 이렇고 저렇고 그랬고, 쉼 알아서는 그랬고 또 나이 먹어서는 부모가 안 계시니 그렇고... 이것을, 이 불효를 어떻게 할까?' 하고 요렇게 착담아서 이렇게 그냥 그 놓는 그 마음이 말입니다. 그 마음이 꽃송이처럼 향기가 퍼져서 온 천지에 이르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그 영령들의 마음이 '아이고, 우리 아이들의 마음이 이렇게 하늘에서까지 향기가 퍼지는구나.' 하고 그 퍼지는 걸 느끼면서 그냥 와서 친견을 합니다. 친견을 할 때 모습이 없으면 친견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꽃을 놓거나 유품을 놓습니다. 거기에 응접하라고 그래서 꽃잎마다 응접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응접을 해서 '장하구나, 장하구나! 내 아들 장하구나!' 그러다가 어느덧 그 조상이 알게 되면, 그 도리를 알게 되면 그 자식의 마음, 공부한 자식의 마음속으로 딱 들어가 보면 '아하, 내 자식이 따로 없구나. 돌아가면서 부모 자식 노릇 하기에 얼마나 모두가 더불어 같이,

였지 덜하지 않았습디다. 그런 마음, 그 마음 생각만 하면, 그 우거지를 끌어 놓고도 "나는 배가 부르니까 너희를 먹여라." 하고 열무청 우거지를 삶아서 그거라도 간장에다가 찌그러뜨려서 해 주시면 그 어머니의 생각, 그 모두를 생각한다면 정말 눈물을 흘려서 대동강이 된들 어찌 다 하리까. 그럴 때, 그 생각을 할 땐 봉투에다가 내 마음을 담아서 그냥 열심히 마음으로 마음을 담아서 놓을 때 진짜 이것은 눈물겨울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다 주고 바꾼다 해도 그 부모의 은혜는 정말이지 그뜨거운 부모의 정은 못될 겁니다. 우리는 그 정 의 찻줄을 먹고 그렇게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임신을 해서 3개월이 되면 벌써 이게 찻줄을 잡게 마련입니다. 이렇게 해서 모두 살고 있는 여러분입니다. 그러니 남녀를 막론하고 우리가 마음을 깊이 가지고 열심히 하시면 그대로 스님도, 해 드리는 스님까지도, 이렇게 영령들이 처음에 들어오시면 벌써 유품에 먼저 좌정하십니다. 그리고 유품에서 또 그 스님한테로 옮겨집니다. 찰나찰나 말입니다. 그리고 또 자손들이 계시면 자손들에게 응접을 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주 정결해지고 아주 따뜻해지고 지혜롭고 이 오온이 다 내 자리 아님이 없을 때에 비로소 그 영령들도 '아! 이렇구나. 이런

내가 못한 것을 자식이 할 수 있게끔 정열을 쏟고, 자비를 베풀고 모두 이렇게 해서 믿고 나갈 수 있는 그 힘을 기릅디다.

그럼으로써 일 년에 4만 원씩 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신도님들은 물물거려서나 여느 회사나 직장이나 또는 가게나 이런 데서 그 신문을 보게끔 모두 여러분이 노력해야 되겠습디다. 그건 왜냐하면 우리가 봐서 아무 쓸모 없다면 그렇게 인권이라고 내가 말도 못하지요. 그러나 사람이 일 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그것을 볼 수 있다면, 봐서 이익이 갈 수 있다면, 거기에서 보고 급하면 그 생각이 나게 돼 있습디다. 이런 거짓말이 아닙니

다. 급할 때 '아, 거기에 그렇게 써 있더라.'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그렇게 써 있으면 아, 그렇게 급하면 해 보게 돼 있습디다. 그러면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모두 인권을 해서 우리가 잘 앞으로 모두 범위가 커지고 확산되고 이렇게 해서 세계의 발판을 세우게끔 만듭디다.

※ 위 법문은 1994년 8월 21일 특별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나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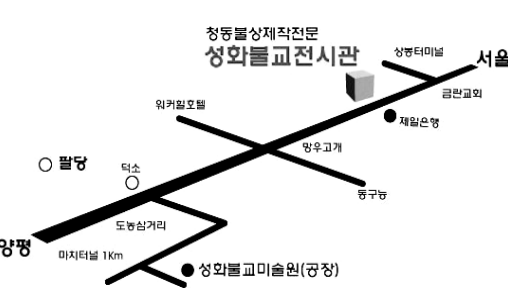
# 청동 불상 제작 전문

청동불상 · 천불 · 삼천불 · 만불 · 개금 · 탱화 · 금고 · 범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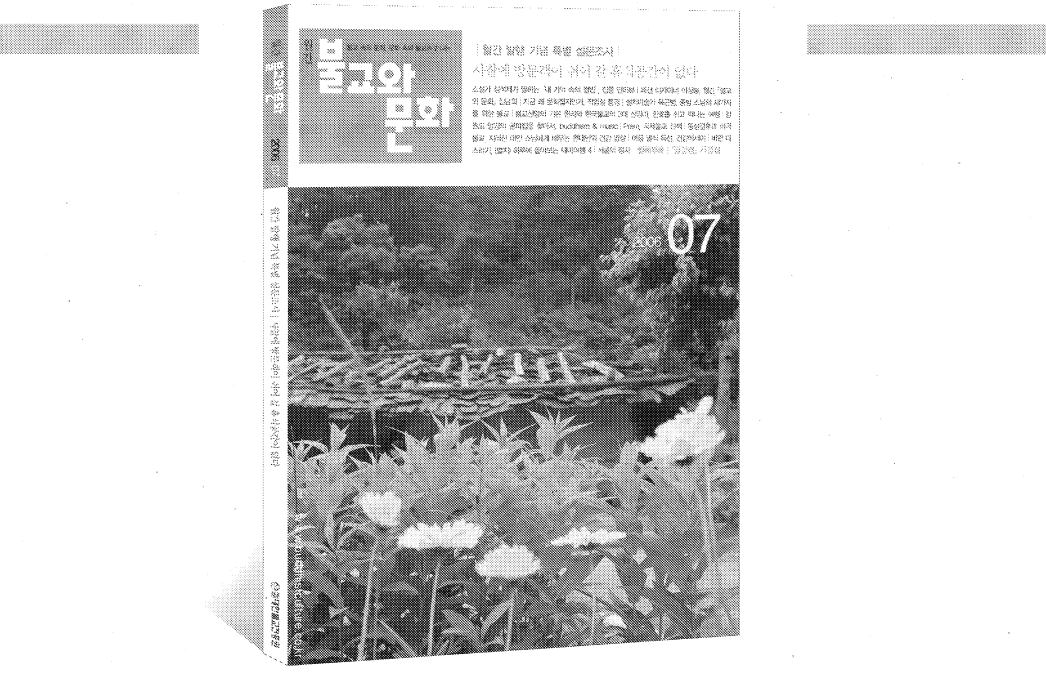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카드로그 필요하신 분 전화 주세요.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청동불 40여분 전시 중



- 성화불교전시관 : 02)2209-0080
  - 성화불교미술원 : 031)591-1022
  - 휴대폰 : 011-302-1022 주·야 상담 합니다
- 서울시 중랑구 망우 1동 133-33 대창빌딩 1층



(재)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홍승희)이 불교의 대중화·현대화·생활화를 위해 펴내는 문화잡지  
**'불교와 문화'가 2006년 7월호부터 월간지로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www.buddhistculture.co.kr

구독 문의 : 월간 『불교와 문화』 문화사업단 02-706-1570, 1571 / 1년 구독료 : 30,000원(12권)